

文 “깜짝 만남 남북 새 시대 징표”... 金 “제안 하루만에 방북 감사”

4·27 회담부터 5·26 회담까지 **반전과 파격의 순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서명



5월 11일 트럼프 미 대통령,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22일 펜스 미 부통령, '선 핵폐기 후 보상' 취지 언급. 한미정상회담 (미국 워싱턴DC)



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발 폐기 공개. 최선회 북한 외무성 부상, 담화 통해 펜스 미 부통령 비난. 트럼프 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회담 취소' 공개서한 발표



25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북미회담 개최 희망' 위임 담화 발표. 트럼프 미 대통령,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시사.



26일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번째 정상회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 트럼프 미 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검토 '질 진행 중' 언급

정상회담 무슨 얘기 오셨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26일 '깜짝 정상회담'은 엄청난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청와대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비핵화 정세와 관련한 현재 상황을 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가 만들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당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다 합쳐져야 북남관계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평양과 서울이 더 가까워지고 화적인 마음이 모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제안한 지 하루 만에 회담이 성사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문제를 위해 (문 대통령이) 오신 것이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많은 사람과도 긴밀히 대화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각자가 본분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가 27일 공개한 회담 영상을 보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만난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중간 중간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폭소를 터뜨리는 모습도 보였다.

김 위원장이 먼저 문 대통령이 이날 판문점 북측으로 넘어온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이렇게 깜짝 방문을 했다"며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27 때도 명장면 중 하나가 10초

김 위원장 "국제사회 힘 모아야 북남관계 개선" "가을엔 더 잘 대접"

문 대통령 "중요한 회담 앞두고 남북 협력 의지 보여줘서 뜻깊었다"

동안 (문 대통령이) 넘어오는 것 아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좋은 자리에서 맞이하러 온 차량으로 맞아줘야 하는데, 장소도 이렇다. 잘 못 해드려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얘기가 좋은 결실을 봐, 가을에 평양에 오시면 대통령 내외분을 (잘) 맞아주겠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가 가을에 평양에 가는 약속이 돼 있는데, 그때 평양을 방문해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남북 두 정

상이 이렇게 쉽게 '깜짝' 만났다는 것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회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님은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았다. 아주 기대도 높아졌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다행이다"라고 답해 참석자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김 위원장은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하루 만에 대통령이 오셨다"며 "다시 한 번 더 다가가고 평화적으로 그런 마음이 가까워지고 모이려고 (있다)"라고 했다.

2시간 가량의 회담을 마치고 공개된 마무리 발언에서도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

김 위원장은 "누구보다 가을에 (문 대통령이) 평양에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말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에서도 함께 했다"며 4·27 정상회담 당시를 떠올리자 회담장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 대통령은 "필요할 때에 이렇게 연락해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징표"라며 "아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남북이)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다시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네며 이날 회담을 마무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트럼프·김정은 잇단 만남 ... 발빠른 외교적 대처

문 대통령 소통 리더십 빛나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발빠른 외교적 대처로 위태로워 보였던 6·12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남북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난기류를 만나자 북미 정상과의 잇따른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오해를 불식하며 비핵화 담판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 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6일에는 김 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한 달 만에 남북정상회담에 갖는 등 숨 가쁜 일정

을 소화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명운을 가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불안정해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 측의 미국 비판 담화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선언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좌초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적극 수용하면서 북미 간의 소통과 신뢰 채널을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장애물이 되는 북미 정상 간 불신의 벽을 좀 더 확실하게 허무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 할 경우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김 위원장에게 앞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 관계를 확실히 종식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돕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실무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과 원칙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실무진이 불필요한 힘겨루기로 판을 흐트리는 것을 경계하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거머쥘 전선선언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아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비핵화 첫 발' 북, 풍계리 핵실험장 24일 폭발

북한이 지난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강도 폭발 방식으로 폐기했다.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해 비핵화 조지의 첫 걸음을 선제적으로 내딛음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도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한국과 미국 등 5개국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17분까지 핵실험장 2·3·4번 강도와 막사, 단야장(금속을 불에 달구어 버리는 작업용 하는 자리), 관측소, 생활건물 분부 등을 연쇄 폭발하는 방식으로 핵실험장 폐기를 진행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오전 11시에 남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등 5개국 취재진이 풍계리 현장에 도착한 직후 폭발하는 행사를 했다"고 밝혔다. 핵실험장 강도 폭발은 오전 11시 2분 강도를 시작으로 오후 2시 14분 4번 강도, 오후 4시 2분 3번 강도 순으로 이뤄졌다.

북한도 이날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핵

시험장 폐기는 핵시험장의 모든 강도를 폭발의 방법으로 봉쇄시키고 강도 입구들을 완전히 폐쇄하는 동시에 현지에 있던 일부 경비시설들과 관측소들을 폭발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며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상의 모든 관측 설비들과 연구소들, 경비 구분대들의 구조물들이 순차적으로 철거되고 해당 성원들이 철수하는 데 따라 핵시험장 주변을 완전 폐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풍계리 현지발 기사에서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이 "(핵실험장 폐기의) 마지막 행보는 모든 인원의 완전한 철수와 핵실험장을 둘러싼 지역의 최종적 폐쇄가 될 것"이라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부소장은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야 "2차 정상회담 환영" 한국당 홍준표 "선거용 쇼"

여야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모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만 별다른 논평 없이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용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의지와 신뢰를 재확인한 파격적인 회담이었다"고 호평했다.

민중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어제 회담은 남북 서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회담 정례회에 발판을 놓은 것과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어제 정상회담

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미 3자가 확고한 당사자로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을 때만 해도 비판의 날을 감던 바른미래당도 이날만큼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노원구 강연체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어제 갑자기 문 대통령이 또 쇼를 시작했다"며 "오로지 지방선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신약번호 : 21719239

NAVER 유한바이오펙셀생물건강 | 검색

010-3598-7080

다스코진 세라코진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 이름 다스코!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 이름 세라코!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일반주택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을 위한 영업대리인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을 위한 영업대리인
 - 태양광발전소가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 태양광 영업 인제 모집

ONE-STOP TOTAL SOLUTION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재를 모집합니다!

부 문	담당업무	자격요건	근무지
다스코	전략기획	전략기획	화순
	신사업개발	신사업개발	
세라코	수출관리	수출관리	나주
	생산관리	생산관리	

▶ 접수처: 담당자 06330-2027, mcm@daesco.kr, 접수기간: ~ 채용시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고시 제 2018-63호

손실보상계획 열람 공고

(주)영무건설에서 추진 중인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506-3번지 일원의 영무에다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이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손실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8일

주식회사 영무건설

- 대상물건 :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481-3, 483-12, 483-13, 483-14, 479-14, 479-16, 479-17, 479-18, 480-31, 480-37, 480-40, 480-33, 480-35, 480-36, 480-34, 480-41, 501-3, 대지 및 담, 도로, 전 등 계 1,564㎡ 이 정수외 7명
- 보상방법 :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한 후 보상금 계좌입금
 - * 단,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기간 이내에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추천할 경우 3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액을 결정함.
- 보상의 시기 : 열람기간 종료 후 소유자에게 별도 통지
- 열람기간 : 2018. 05. 28. ~ 2018. 06. 11.(15일간)
- 열람장소 : 전라남도 순천시 도시과 061-749-6315
현장 사무실 061-725-2955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할 계획이나, 거소·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하며,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